



하기에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하기로 가는 메이지 유신 여행

하기(萩)라는 도시가 있다. 메이지유신의 발상지다. 내 전공이 메이지유신이다 보니 여러 번 다녀왔는데, 악화된 한일관계와 코로나로 못 가본 지 한참 됐다. 짬이 날 때면 가끔 답사했던 사진들을 꺼내보며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내 생전에 가고 싶어도 하기를 못 가는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다.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신칸센으로 야마구치까지 간 다음 다시 자동차로 한 50분 간다. 인구 6만의 자그마한 지방 소도시다. 좀 더 낭만적인 코스라면 부산에서 부관페리를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간 다음 하기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는 가 본 적이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산에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에 가서 사시미나 초밥을 실컷 먹고 당일로 돌아온다고 한다. 뱃값 뽐는다 한다. 일본에서 먹는 김치는 대개 밍밍하고 약간 달달한 '기무치'인데, 시모노세키에서는 부산에서 막 가져온 칼칼한 '김치'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래저래 한번 가보고 싶은 코스다.

일본 여행 얘기를 시작하니 벌써 글이 이곳저곳으로 튜다. 오늘의 주제는 시모노세키가 아니라 하기다. 얼마 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봤는데, 재미는 별로였지만 일본, 동남아시아 로케가 많아서 가상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든 건 좋았었다. 독자분들도 잠시 일본 지방 도시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옛 하기의 지도〉

“재미있을 것도 없는 세상을 재미있게”

하기는 도쿠가와 시대 유력 번 중 하나였던 조슈번의 성하정(城下町), 즉 수도였다. 270개 번 중 랭킹 9위 번의 성하정이었으니 인구도 3만 명이 넘었고 시가지도 위풍당당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용케 남아있다. 내가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다. 이곳을 걸어보면 에도시대 성하정의 모습과 사무라이들의 분위기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 번주(藩主)가 살던 성은 해자와 담벼락만 남아있다. 메이지 정부는 번들이 성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모든 성의 철폐를 명령했다. 메이지유신의 주역이었던 조슈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메이지유신을 이끈 사쓰마번과 조슈번에서 메이지 정부에 대한 사무라이반란이 일어났었다. 메이지 정부가 과격하게 사무라이 신분 철폐까지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조슈번의 사무라이들은 메이지 정부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성은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해자와 담만으로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성이 바다에 바로 면해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여러 시설이 있는 것도 특이했다. 눈앞에 보이는 바다 너머는 한반도다.

성을 나와 사무라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선다. 도쿠가와 시대 성하정은 신분별로 거주지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번주가 있는 성에 가까울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급 사무라이들은 변두리에서 다닥다닥 붙어살았다. 조닌(町人:상공업자)들도 자기 직종에 따라 모여 살았다. 도시 구성부터가 철저한 신분제 사회다. 성에서 얼마 안 떨어져 다카스기 신사쿠의 집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격렬했던 조슈번의 반막부운동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하급 사무라이들의 집에 비하면 훌륭하다. 비록 하급 사무라이 운동을 지도했지만 그의 신분이 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카스기 신사쿠는 1866년 막부가 조슈번을 토벌하려 사방을 압박했을 때 기병대(奇兵隊: 비정규군)를 조직해 기사회생의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다. “재미있을 것도 없는 세상을 재미있게”라고 읊으며, 늘 술을 마시고 악기를 탔던 풍류남아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메이지유신을 못 보고 병으로 죽었다. 시모노세키 외곽에 동행암(東行庵)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사랑했던 게이샤가 비구니가 되어 이곳에서 그의 묘지를 지켰다. 비가 오던 날 암자 앞을 흐르던 개울이 불어나 노도(怒濤)와 같이 흐르던 모습이 생각난다. 아마 다카스기가 유신 후에도 살아있었다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조슈 출신들은 영원한 2인자로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사무라이, 상인을 질투하다

그런데 다카스기 집에서 도시 가운데로 나 있는 대로변으로 조금 나오면 ‘중요문화재 기쿠야 저택’이라는, 멋진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집안 구조와 함께 황홀한 정원을 볼 수 있다. 아까 본 다카스기 같은 중신급 사무라이들의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지다. 번주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조달하던 어용상인 기쿠야 가문의 집이다. 얼마나 집이 멋있는지 막부에서 사신이 오면 여기서 머물렀다고 한다. 이런 집을 보는 사무라이들의 심정이 편했을 리 없었을 것이다. ‘천한 상인 주제에 돈푼개나 있다고 사무라이 거주지에 떡 하니 고급 저택을 짓고 살다니 괘씸한 자로고...’ 실제로 이 시기 사료를 읽다 보면 사무라이들, 특히 가난한 하급 사무라이들이 부유한 상인들을 비난하는 대목이 많다. 메이지 유신은 대외 위기의식도 의식이지만, 부자 상인들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시샘’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기쿠야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이 근처에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하기의 명물은 미강(감굴)과 하기야끼(도자기)다. 파란 하늘과 투명한 공기 사이에 달려있던 미강 열매가 눈에 선하다. 하기야끼는 임진왜란 때 끌려온 조선 도공들에게서 시작되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쓰마야끼나 이마리야끼, 아리타야끼 등이 귀에 익은데, 하기야끼도 꽤 유명하다. 하기에 갈 때마다 손이 갔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에 늘 머뭇거리다 뒤돌아서곤 했다. 후회가 된다. 다음에 가면 그릇 하나 사 와야겠다.

메이지유신의 스승, 요시다 쇼인

대로를 따라 주변을 둘러보며 주욱 내려온다. 공기도 맑고 도시도 그리 크지 않으니 걷는 게 즐겁다. 걷기 싫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삼십 분 걸다 보면 작지만 예쁜 강이 나온다. 성하정 하기를 감싸고 도는 마쓰모토강이다. 나는 이 강을 건너야 한다. 건너편에 ‘메이지유신의 스승’ 요시다 쇼인이 있기 때문이다. 쇼인은 강 건너에 살며 송하촌숙을 열어 조슈번의 인재들을 가르쳤다. 성으로부터는 강을 사이에 두고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니 그의 신분을 알 만하다. 그러나 쇼인이라는 대단한 선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심찬 젊은 사무라이들이 강을 건너 그 문하에 모여들었다. 다카스기 신사쿠, 가쓰라 고고로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배움을 청하러 왔고,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시나가와 야지로 등 하급 사무라이들도 찾아왔다. 훗날 이 조그만 서당에서 메이지 정부의 수상, 대신, 장군이 다수 배출되었다. 당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메이지 정부 내각이 될 정도였다.

강을 건너면 바로 장대한 쇼인신사가 있다. 제자들이 대거 출세했으니 스승의 신사도 거대하고 웅장하다. 그 입구에는 ‘明治維新胎動之地(메이지유신이 태동한 곳)’라는 커다란 비석이 놓여있다. 1960년대 후반 일본 수상을 역임하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사토 에이사쿠가 쓴 글씨다. 그는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의 친동생이고, 기시는 아베 신조 수상의 외할아버지다. 아베수상이 재임 시 이 비석 앞에서 묵념을 하는 모습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프라이하잇(vrijheid)’이라는 네덜란드어를 좋아했다. 자유라는 뜻이다. 신분제와 쇄국 체제로 이뤄진 이 꽉 막힌 사회를 뚫고 나가 자유를 구가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천황에 충성하고 일본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자유였다.

천황 및 일본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가 충돌하면 주저 없이 전자를 선택할 것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천황 중심의 강국을 건설하기는 했지만, 그 나라는 자유와 민권(民權)이 융성하지는 못했다. 그는 또 ‘광(狂)’이라는 말을 사랑했다. 자신을 광인(狂人), 광부(狂夫)라 즐겨 불렀고, 자신의 의견을 광언(狂言)이라 하길 마다하지 않았다. 사실 미치지 않고서 어찌 이 짝 막힌 사회를 전복할 수 있었겠는가.

잔나비 스님

답사팀 멤버들과 저녁을 먹고 근처에 있는 바를 찾았다. 일본의 바는 남성 마스터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한잔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우리 일행 대여섯 명이 바에 주욱 늘어앉았다. 오른쪽 맨 끝에는 동네 손님이 한 분 혼자 있었다. 눈썹과 쌍까풀이 짙고 헤어스타일은 밴드 잔나비의 보컬 같은 호남(好男)이었다. 마침 그 옆에 앉아 있던 우리 일행의 한 여선생님과 말을 트더니 오랫동안 둘이서 대화를 나눴다. 나이는 여선생님보다 대여섯 위로 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머지 일행은 우리끼리 하루 답사의 피로를 풀며 술을 훌쩍거렸다. 이윽고 그 여선생님이 일본인을 소개해 줬다. 스님이란다. 게다가 조그만 절이기는 하지만 주지란다. 일본 스님들이 대처승이란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잔나비 보컬의 머리를 하고 이속한 밤, 바에서 위스키 즐기는 주지스님은 처음 봤다. 그 여선생님이 일본 사상과 종교의 전공자였으니 말이 서로 잘 통했나 보다.

“멀리서 오셨네요. 내일은 어딜 가세요?” 스님이 우리에게 물었다.

“야마구치시에 있는 유리광사(瑠璃光寺)를 보려고 합니다.”

유리광사 경내에 있는 오중탑을 보기 위해서다. 물론 야마구치에도 이곳저곳 메이지 유신 관련 답사지는 있다. 그러나 공부도 좋지만 야마구치에 가면 유리광사 오중탑이다. 600년 된 목탑이 연못 옆에 홀로 서 있는 광경은 단연 최고다. 나는 아직도 탑을 보며 그만한 감흥을 느껴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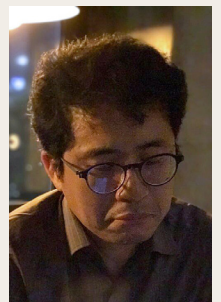


〈600년 된 유리광사 오층탑〉

“그러시군요. 아무쪼록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스님이 인사말과 위스키를 조금 남기고 자리를 떴다.

다음날 오중탑에 빠져 있는데, 뒤에서 일행들이 “어? 어?”했다. 돌아보니 어젯밤 스님이다. 손에는 책이 잔뜩 들려있다.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 그냥이라며 우물쭈물한다. 그러면서 그 책을 건네주었다. 자기 절과 이 지역에 관한 책들이다. 그러고는 일이 있다며 쑥스러운 표정을 남기고는 절 아래로 내려갔다. 설마 이걸 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의아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아, 저 스님이 000선생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왔구만!” 당사자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만 모두는 그리 믿고 오중탑을 뒤로했다.

기업인들은 이제 왕래할 수 있게 됐다. 기업만큼 중요하다고 소리쳐봤자 아무도 안 들어 주겠지만 나 같은 일본사 전문가도 급하다. 자료조사도 답사도 연구교류도 중단된 지 1년이다. 연구자들도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맨 먼저 하기부터 가야겠다. 그 스님은 오늘 밤도 그 바에 계시려나....



박 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